

2014 재무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

KCMI

한국 자산운용산업의 미래: 전략과 과제

2014. 5. 15

송 홍 선 펀드연금실장



자본시장연구원
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목 차
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현재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환경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과제

시장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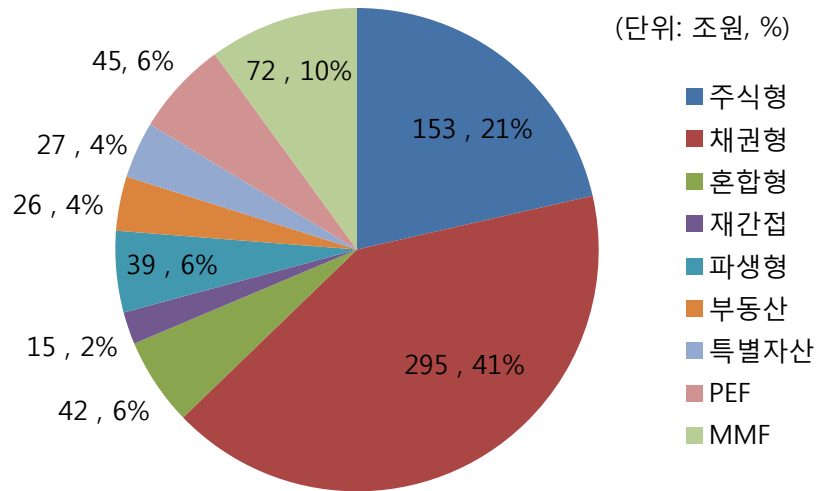
❖ 전체 AUM 714조원

– 채권형 41%, 주식형 21%, 혼합형 6%로 전통자산 비중 약 70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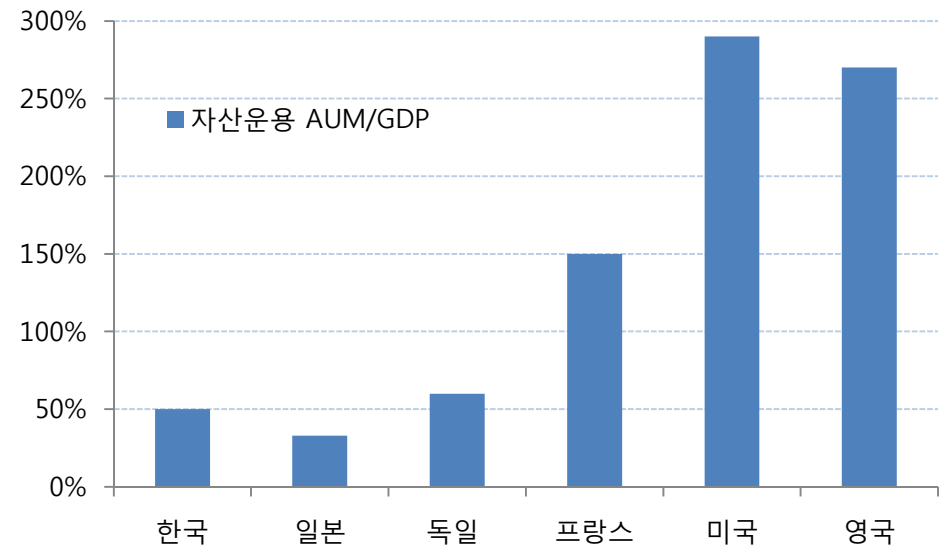
❖ 경제력 대비 자산운용산업 저발전

– GDP 대비 50% 수준

자산운용시장 구성



자산운용시장 규모: 국제비교



주 : 1) 2014년 4월 기준. PEF는 3월 기준,
 2) AUM은 펀드와 일임, PEF의 합이며, PEF는 출자약정 기준
 3) 개별법상 펀드 제외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

주 : 1) 운용시장은 펀드와 일임합계
 2) 한국 2013년, 미국 2011년, 나머지는 2010년 기준임
 자료: EFAMA, SEC, ICI, 금융투자협회,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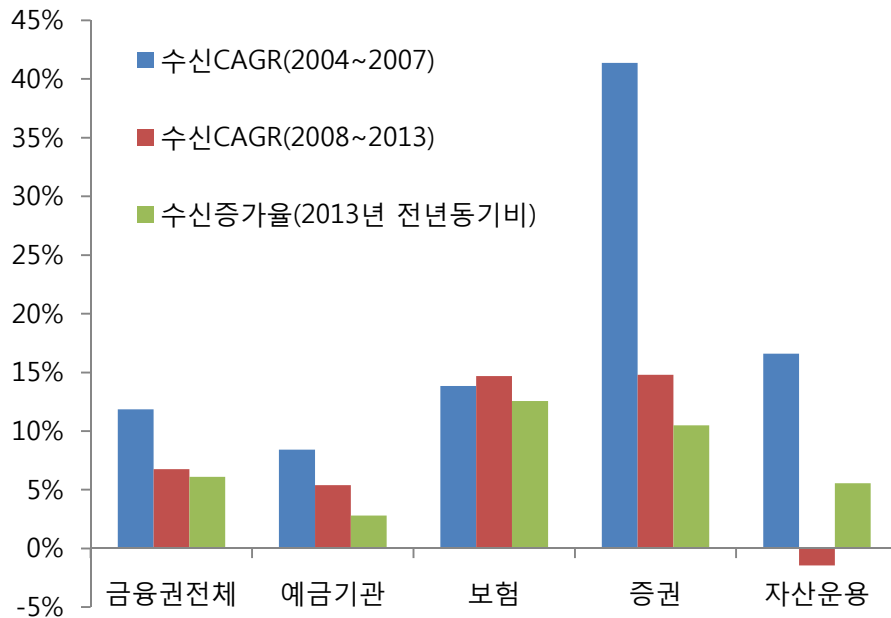
자금흐름



❖ 위험자산과 연금보험으로 money move는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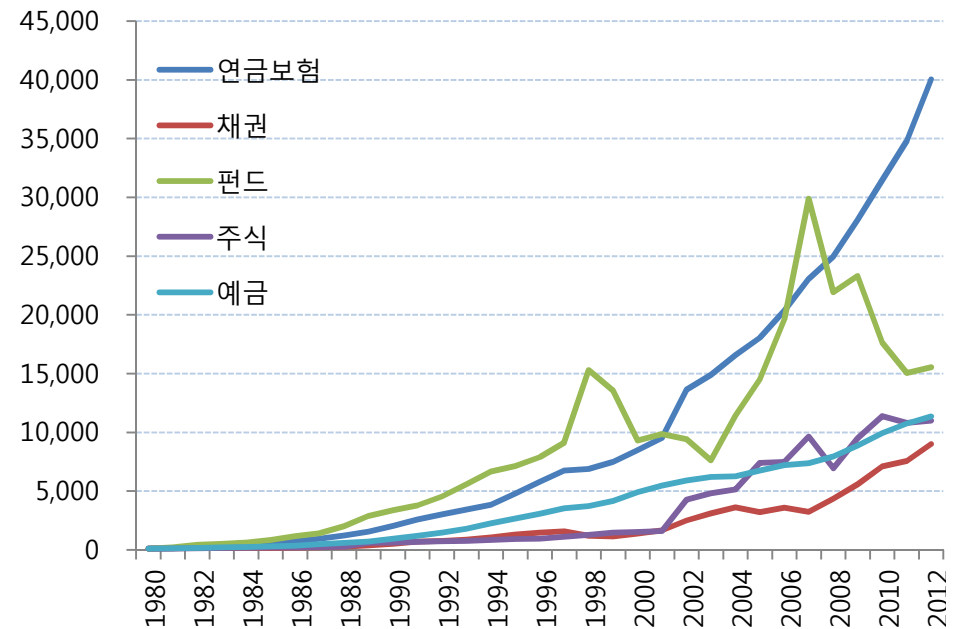
- 다만, 가계의 펀드 보유는 1990년 후반 수준이며, 위기 이후 2011년부터 점진 회복세
- 고령화로 급증하는 가계 연금보험 수요가 펀드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

금융권 수신성장률 추이



주 : 예금기관은 은행, 신탁, 상호저축은행,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합 .자산운용은 펀드 순자산 기준
 자료: 금융감독원

가계부문의 금융상품 수요 추이



주 : 1980=100. 국민연금 은 정부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어 연금보험 보유 규모가 과소평가됨
 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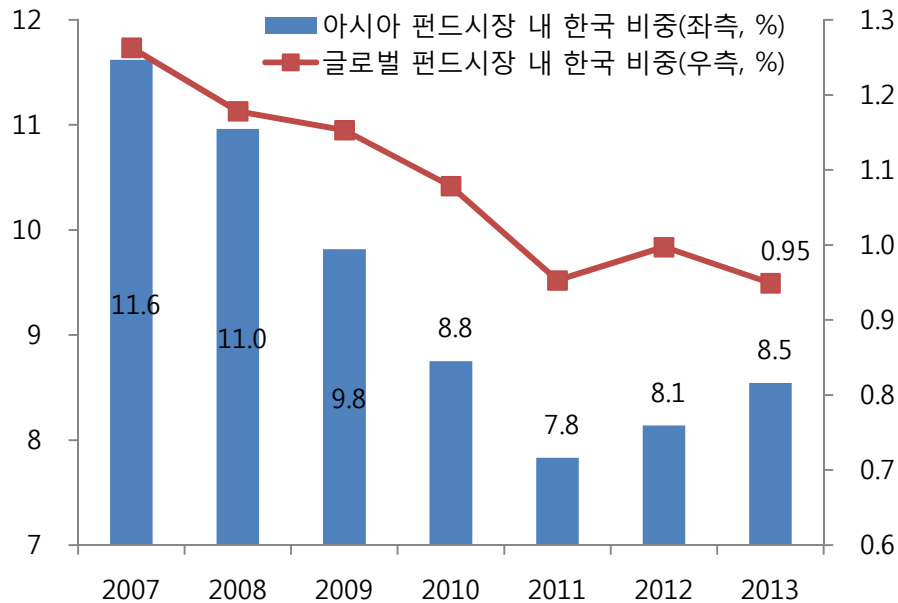
글로벌 포지션



❖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비중 지속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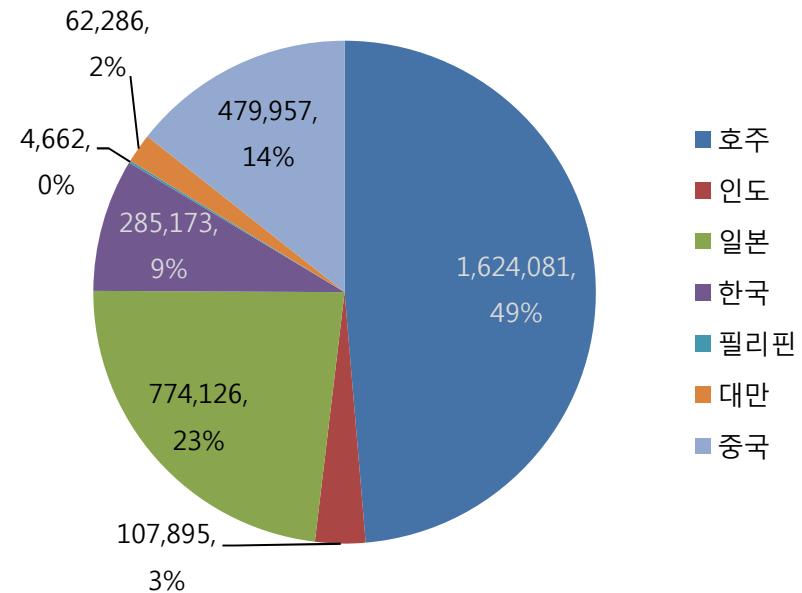
— 아시아시장 비중은 점진 회복(주요 아시아시장의 8.5%)

한국 자산운용시장 규모(순자산기준)



주 : 순자산 기준이며, 아시아에는 호주, 일본, 중국, 한국, 인도, 필리핀, 대만 포함. 홍콩, 싱가포르의 글로벌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.
자료: ICI

아시아 자산운용시장 규모(백만달러)



주 : 2013년 아시아 펀드시장 전체 순자산은 3.4조달러. 참고로 홍콩은 1.2조(HKIFA), 싱가포르의 1.3조달러(MAS)
자료: ICI

상품흐름: 주식형 위축



❖ 주식형 펀드, 5년 연속 자금 유출

— KOSPI 1900 이상에서 2011년 이래 3년 연속 공모주식형 펀드 자금 순유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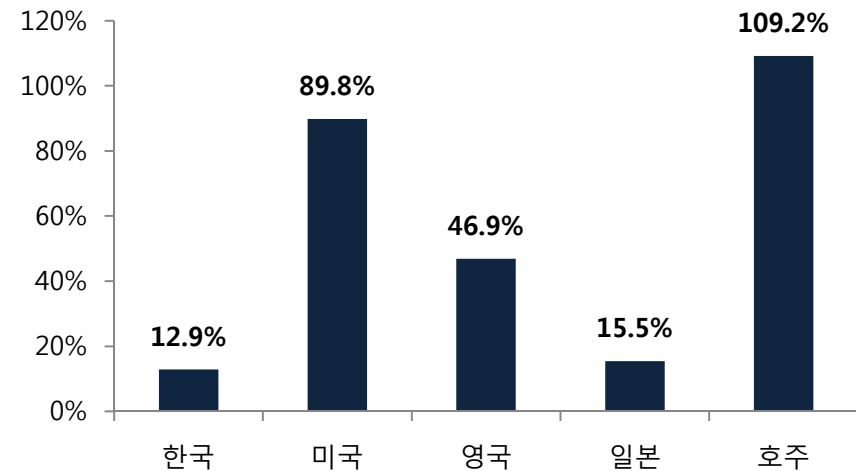
❖ 일본보다 작은 공모펀드 시장규모

주식형 펀드 플로우



자료: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협회

공모펀드 시장 규모: GDP 대비 국제비교



주 : 2013년 말 기준. 한국은 국제비교를 위해 공모펀드만 고려
자료: ICI, IM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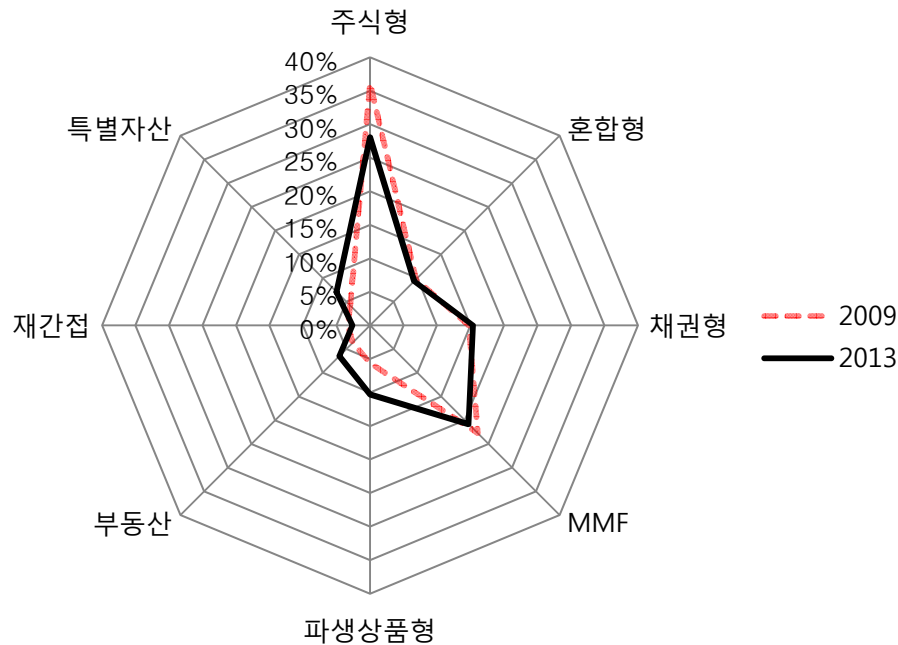
상품흐름: 사모대체 급성장



❖ 대체투자과 사모펀드의 mainstream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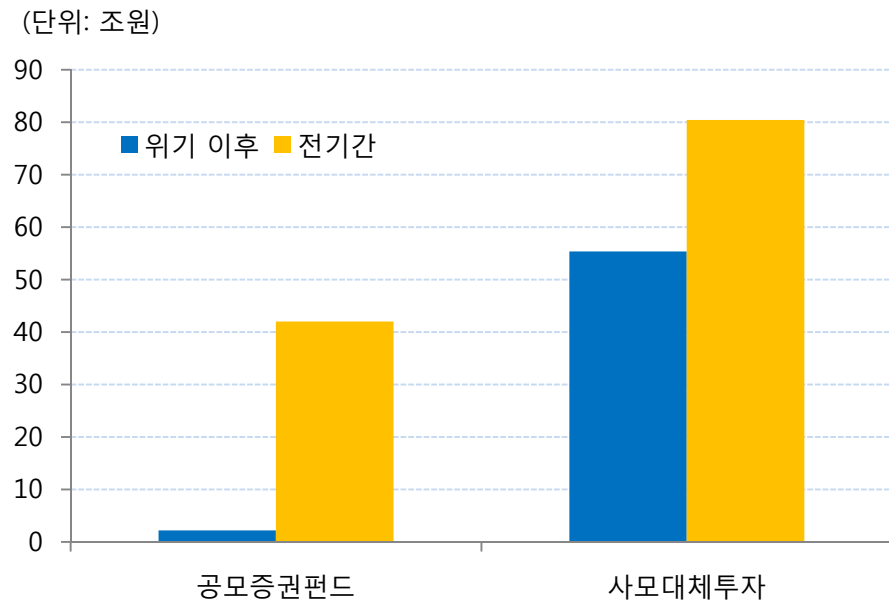
- 금융위기 이후 사모대체투자펀드 순자산 55조원 증가(공모 증권형 정체)

국내 펀드시장 구성 변화: 금융위기 이후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국내 펀드 순자산 흐름



주 : 1) 위기 이후는 2008.12-2013.11월, 전기간은 2005.12월부터임
 2) 기간 중 해당펀드의 순자산가치 누적 변동액
 3) 사모대체투자펀드는 부동산펀드, 특별자산펀드, 헤지펀드, PEF(출자약정기준)임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

상품흐름: 인덱스 약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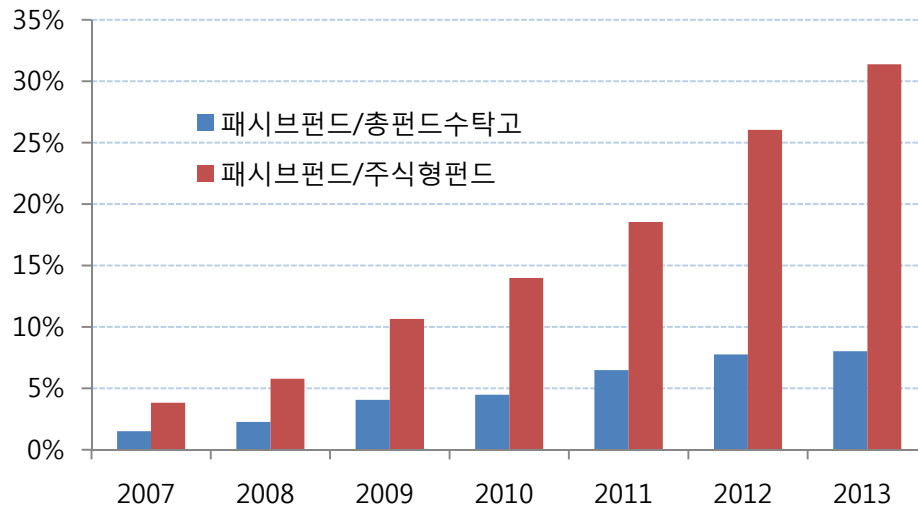
❖ 공모 인덱스펀드 약진

- 패시브펀드 비중이 주식형 펀드 대비 2007년 4%에서 2013년 31%로 급증

❖ 공모 중위험펀드시장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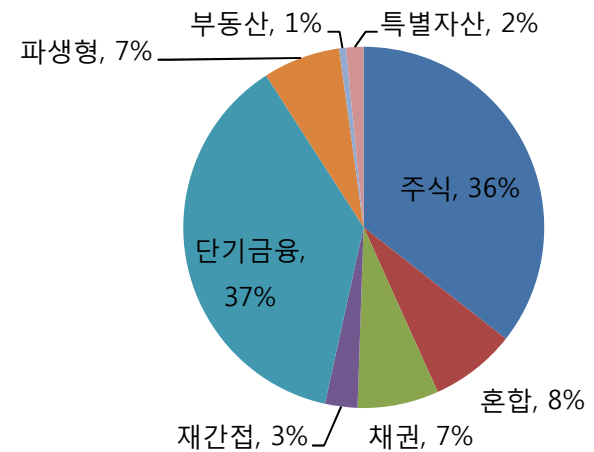
- 롱숏, 인컴펀드 등 증권형 중심으로 공모펀드 다변화
- 대체투자의 공모펀드화 수준 미미
 - 증가하는 대체투자기회로부터 일반투자자 소외

패시브펀드 비중 추이



주 : 패시브펀드는 ETF와 지수연계형 펀드를 합한 것이며, 설정원본 기준임
 자료: 금융투자협회

공모펀드 유형별 비중



주 : 2014년 4월 말 기준
 자료: 금융투자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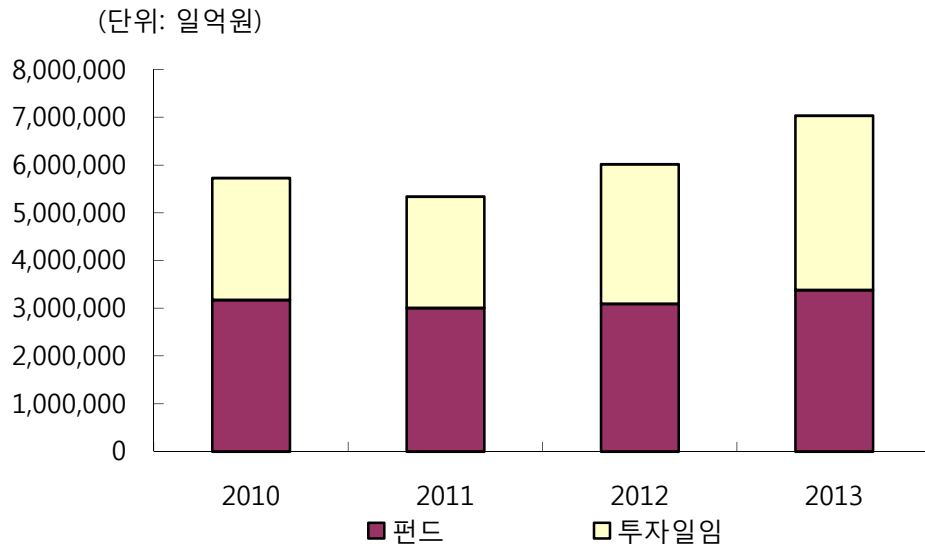
상품흐름: 일임 중심 모멘텀



❖ 자산운용업 모멘텀, 펀드에서 일임시장으로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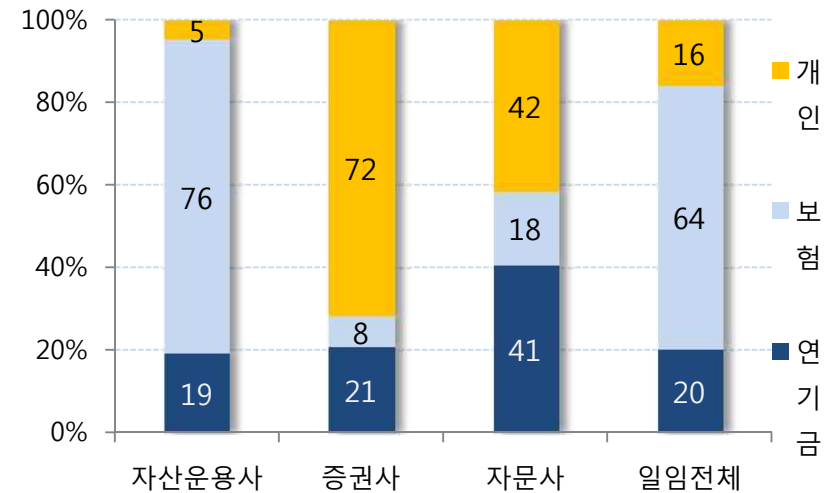
- 2011년부터 연간 60~70조원 증가(2013년 펀드 338조원, 일임 365조원)
- 자산운용사 일임자산의 76%는 보험회사 위탁자산
- 운용사 일임자산의 19%가 연기금 위탁자산이며, 연기금은 전체위탁자산의 78%를 운용사에 위탁

패시브펀드 비중 추이



주 : 펀드는 PEF 제외, 일임자산은 3월말 결산 기준이며, 2013년은 당해년도 11월 기준임
 자료: 금융감독원

위탁자별 일임자산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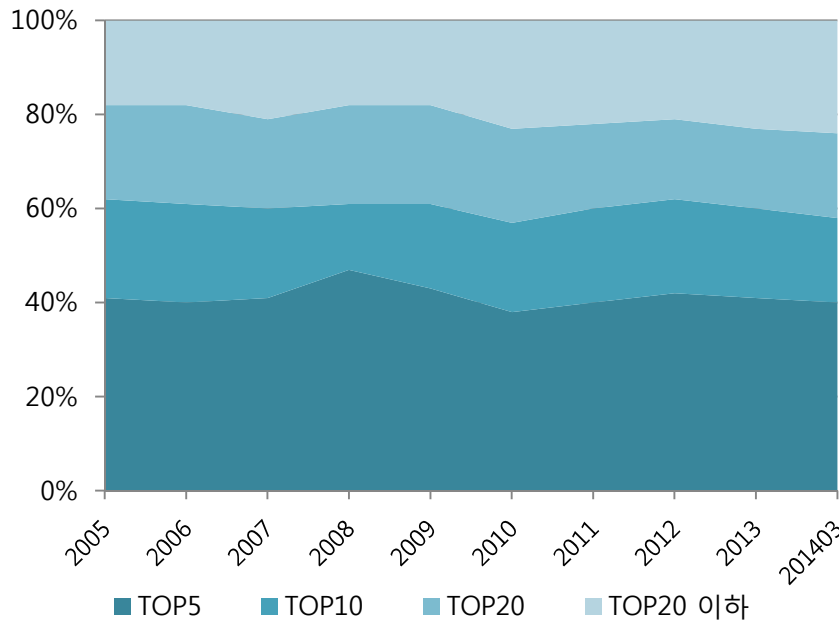


주 : 2013.3월 기준
 자료: 금융감독원

시장구조

- ❖ 시장집중도 CR5 40%, CR10 58%로 높은 수준
 - 영국 시장집중도 2010년 기준 TOP5 30%, TOP10 43%
- ❖ 시장집중도 결정요인
 - 계열채널 대 운용능력(수익률)

자산운용회사 시장집중도(설정액 기준)



설정 상위 자산운용사의 채널 및 수익률

설정액 순위	계열판매 비중(%)	수익률 순위
1	38.00	41
2	39.92	32
3	78.25	8
4	27.51	27
5	80.12	16
6	65.83	38
7	67.43	34
8	60.48	18
9	50.13	23
10	18.07	3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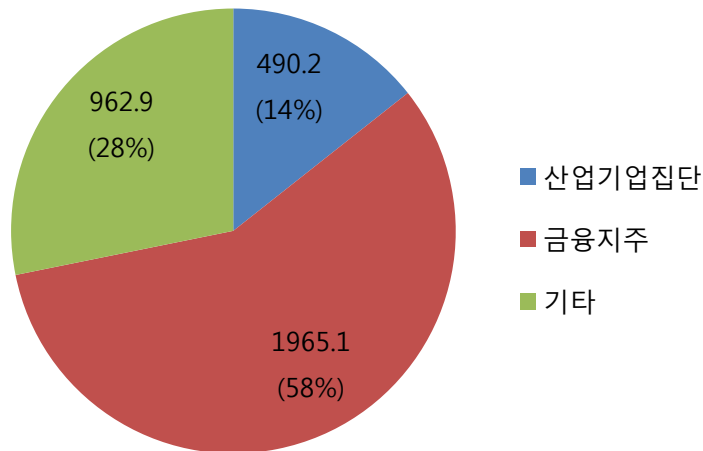
주 : 1) 수익률: 일반주식형 2년 수익률(2014년 4월 말 기준)
 2) 설정액 및 판매자료는 2014년 3월 말 기준
 자료: 금융투자협회, 제로인

산업구조: 비은행 전업금융그룹

❖ 자산운용시장, 금융전업그룹 시장지배력 상대적으로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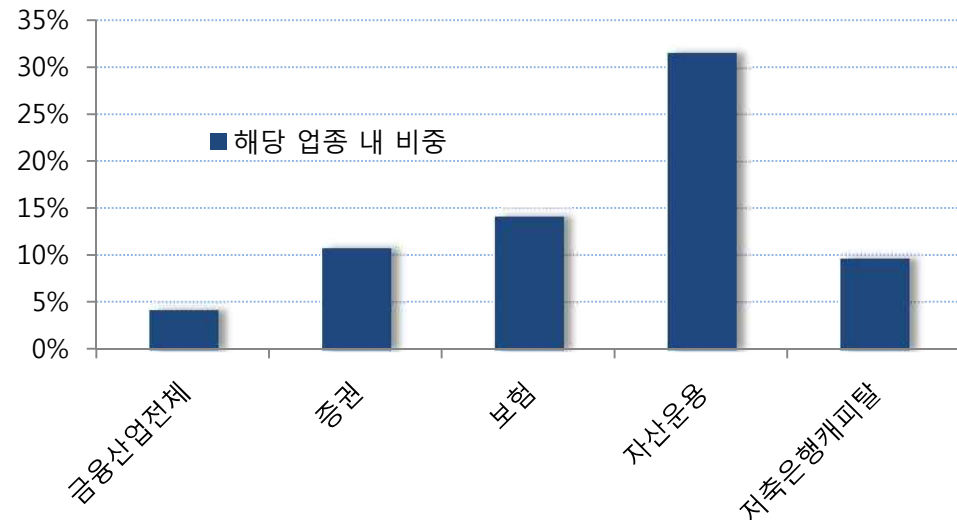
- 금융회사 총자산 3,505조원 중 기업집단 14%, 금융지주 58% 차지, 비은행 전업금융그룹 4%
- 비은행 전업금융그룹이 자산운용시장의 34% 점유

소유형태별 금융회사 비중(자산 기준)



주 : 2013년말 기준. 산업기업집단은 금융주력 및 공기업집단 제외한 48개 기업집단
 자료: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감독원

비은행 전업금융그룹 시장점유율(자산 기준)



주 : 2013년말 기준. 금융지주회사(한국투자, 메리츠), 금융주력모자그룹(교보, 미래에셋) 포함
 자료: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감독원

산업구조: 독립계 자산운용회사



❖ 운용능력이 중요한 주식형, 헤지펀드, PEF 등에서 독립계 약진

국내 자산운용회사 AUM 순위

순위	총 AUM	소속	주식형	소속	헤지펀드	소속	PEF	소속
1	삼성자산운용	기업집단	미래에셋	독립계	브레인	독립계	KDB	은행지주
2	미래에셋	독립계	삼성자산운용	기업집단	삼성	기업집단	MBK	독립계
3	한화자산운용	기업집단	한국투신운용	증권계	미래	독립계	미래에셋	독립계
4	신한BNP	은행지주	KB자산운용	은행지주	트로스톤	독립계	유암코	은행계
5	KB자산운용	은행지주	신한BNP	은행지주	신한	은행지주	보고	독립계
6	한국투신운용	증권지주	트러스트	독립계	대신	증권계	맥쿼리	외국계
7	맥쿼리	외국계	신영자산운용	독립계	하나UBS	은행지주	IMM	독립계
8	교보약사	외국계	알리안츠	보험계	교보	보험계	이큐파트너스	독립계
9	우리자산운용	은행지주	프랭클린템플턴	외국계	우리	은행지주	기업은행	은행계
10	알리안츠	외국계	하나UBS	은행지주	한화	기업집단	KTB투자증권	증권계

주 : 1) AUM은 2013년말 펀드와 일임 합계
 2) 주식형은 주식혼합형 포함
 3) 헤지펀드와 PEF는 2013.9월 기준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
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현재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환경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과제

금융 환경: 연금자산 축적



- ❖ 2020, 고령화로 연금 및 금융소득 중요성 증대 → 기관 운용자산 2배 증가
 - 미래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은 축적된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능력과 직결
 - 장기부채 보유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로 장기투자 culture 확산 기대
 - 퇴직연금 현황: 가입자의 46%, 퇴직금 추정액의 50% 수준

국내 기관투자자 투자자산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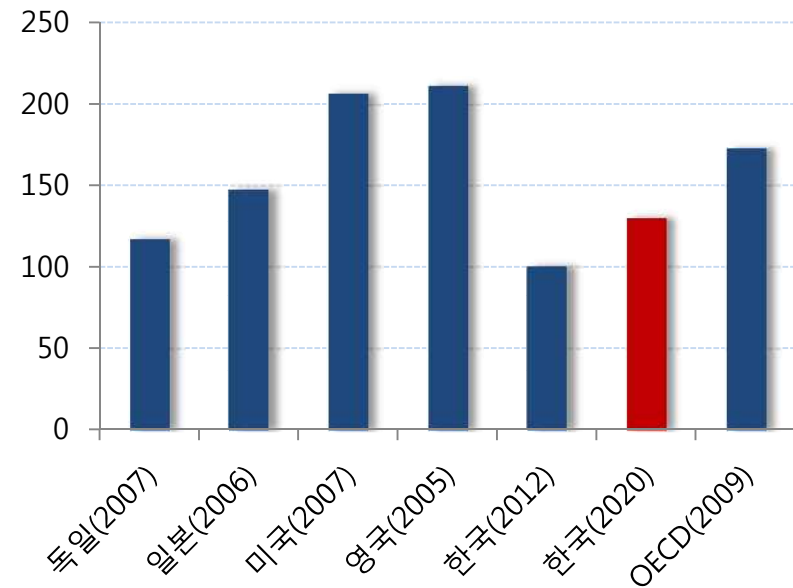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원, 배)

	2012(A)	2020(B)	B/A
공적연금	406.6	750	1.8
퇴직연금	67.3	378	5.6
개인연금	78.8	128~213	1.6~2.7
생명보험	543.1	870~1,475	1.6~2.7
자산운용사(공모펀드)	186	243~358	1.3~1.9
기관합계	1281.8	2,369~3,174	1.8~2.5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(2013)

기관투자자 규모 비교

(단위: %)



주 : 1) 2010년 기준
 2) OECD는 17개 국가 평균치
 3) 기관투자자 = 펀드, 연금, 보험, 신탁 포함
 자료: WFE, OECD, IMF

자본시장연구원
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금융 환경: 가계 자산 선호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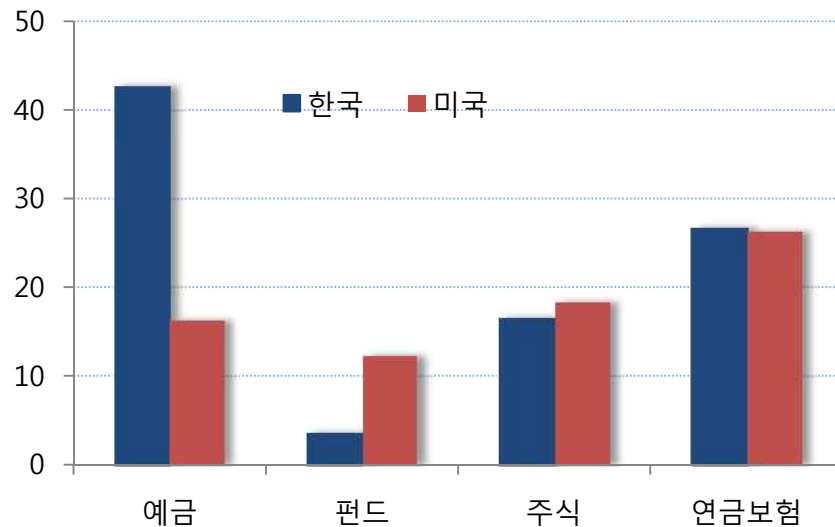
❖ 가계 금융자산의 중장기 리밸런싱 지속

- 고령화, 저금리, 저성장으로 가계 금융자산 리밸런싱의 변곡점 도래 예상

❖ 중위험 중수익의 대체투자시장으로 리밸런싱 기회 확대 전망

한미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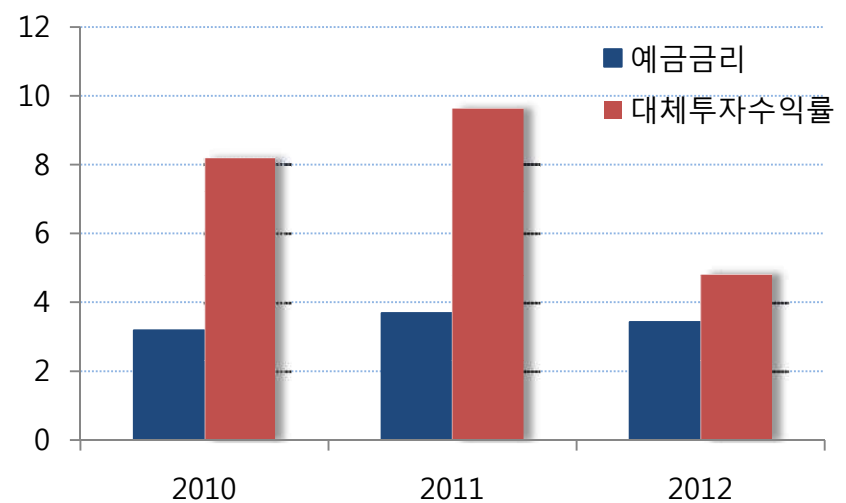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 : 1) 가계 및 비영리조직 총금융자산 대비 비중
 2) 주식은 양국 출자지분 제외
 3) 펀드는 MMF 포함
 자료: 한국은행, FRB

수익률 비교: 수신금리 대 대체투자

(단위: %)



주: 대체투자 수익률은 NPS 자료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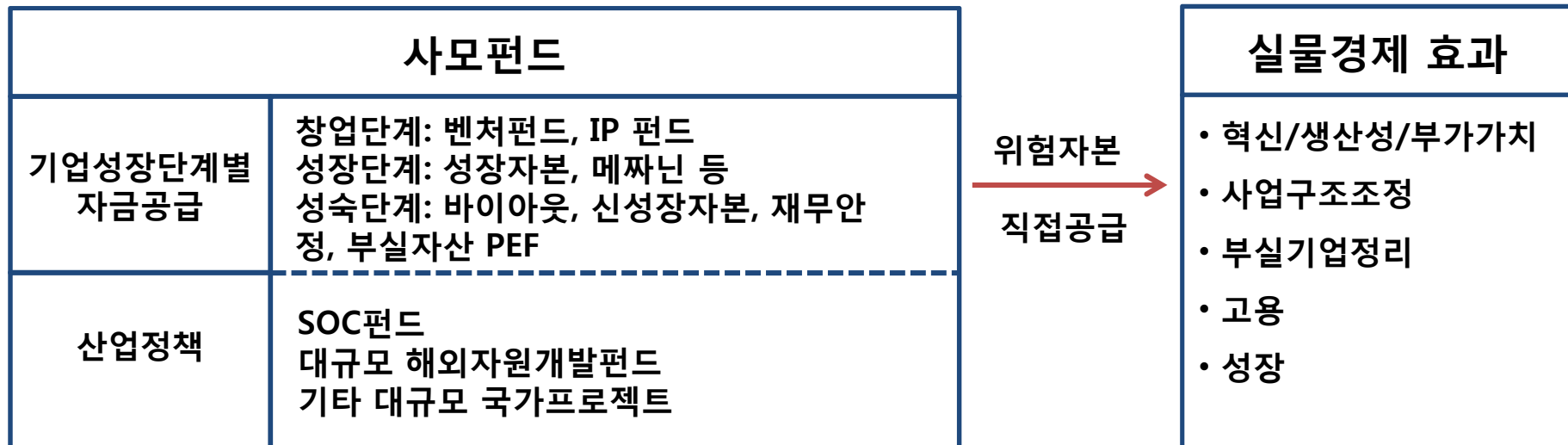
금융 환경: 실물경제 역할 재조명

❖ 창조경제생태계 구성과 함께 대체투자 사모펀드 및 일임시장의 경제적 역할 강조

- 유통증권을 통해 위험자본을 **간접** 공급하는 주식형펀드와 달리, 사모펀드는 실물 경제에 위험자본을 **직접** 공급

❖ 사모펀드 성장은 경제전체의 금융중개와 위험자본 공급체계 변화 의미

- Informed investor와 professional manager가 신생기업, 혁신기술, 부실기업 투자에 따른 정보비대칭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
 - LP(적격투자자) → GP(운용전문가) → 투자대상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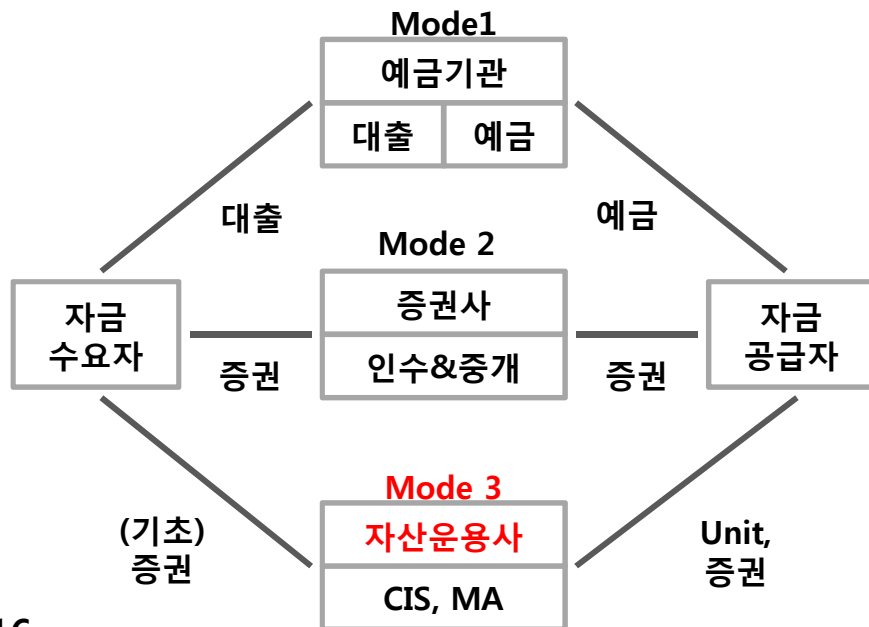


금융 환경: 금융중개시스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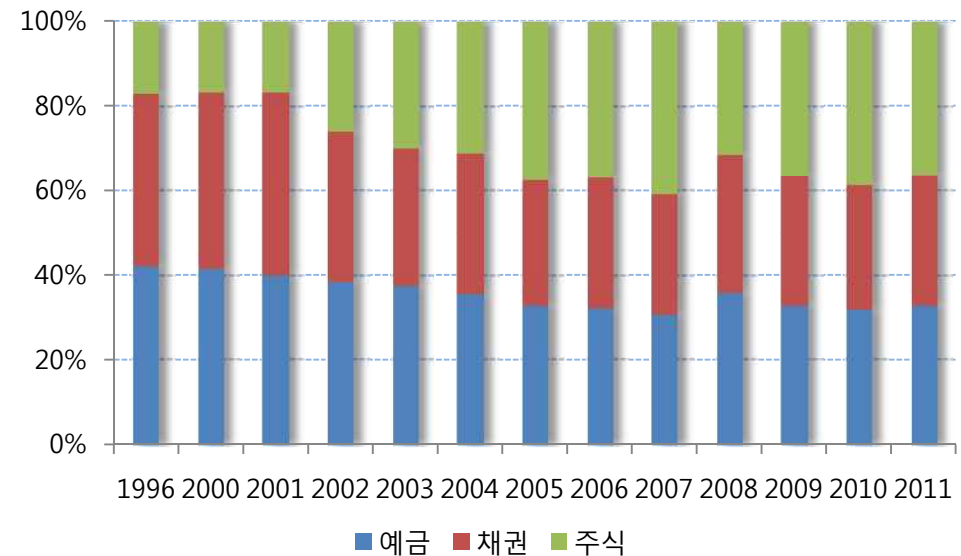


- ❖ 금융의 탈중개화로 자본시장 금융중개기능 발전(mode 2,3)
- ❖ 자산운용시장을 통한 금융중개(mode 3) 비중 증대
 - (가계자산축적) 펀드매니저에 의한 노후자산의 전문적, 체계적 축적
 - (금융-실물 연계 강화) 혁신기업에 대한 위험자본 공급
 - 자본시장 중개의 40% 정도가 펀드, 일임,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 통해 중개

금융중개시스템의 진화



국내 금융중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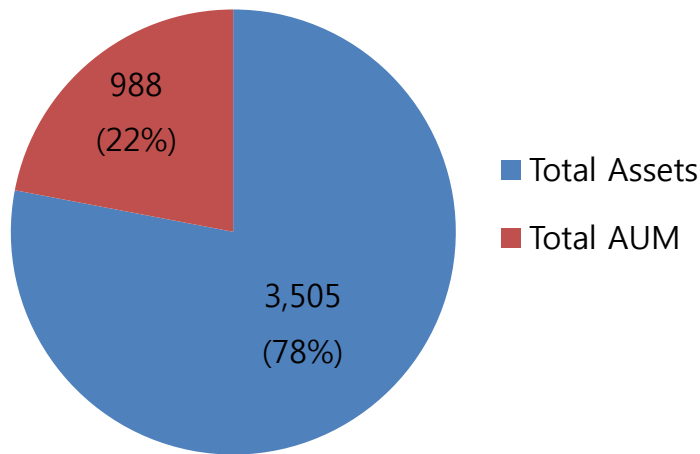
주 : 2001년 이전은 1968년 SNA 기준 시계열
 자료: 한국은행 0

규모 전망: 자산운용시장



- ❖ 2020년까지 연 7~8% 중성장 기조 유지, 약 2,000조원 시장으로 성장
 - 사모펀드, 일임, 신탁 등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성장

금융회사 자산: 고유자산 대 고객자산



주 : 수수료자산은 금전신탁, 펀드, 일임자산을 합친 것임. 2013년말 기준이며 일임은 11월 기준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

자산운용 부문별 순자산 전망

(단위: 조원, 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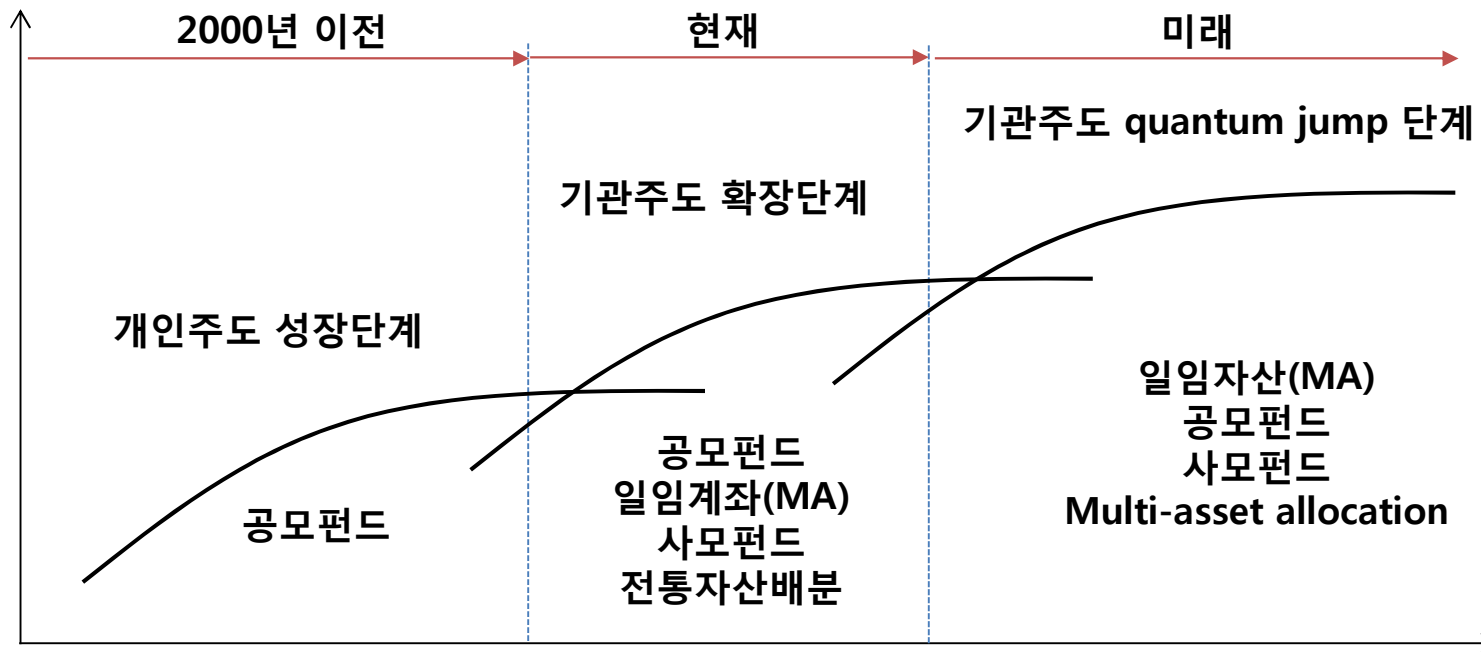
	2012(A)	2020(B)	배수 (B/A)	핵심동인
펀드시장	339	594~731	1.8~2.2	
공모펀드	186	243~358	1.3~1.9	가계금융자산증가
사모펀드	153	351~373	2.3~2.4	
PEF	31.9	70~93	2.2~2.9	M&A, 벤처
헤지펀드	1.2	9~13	7.5~10.8	절대수익추구
부동산펀드	19.9	88	4.4	규제완화
특별자산	21.7	100	4.6	SOC, 에너지
일임시장	331.7	899	2.7	연금, 보험
특정금전신탁	155.3	455	2.9	기업여유자금
자산운용합계	826	1,938~2,075	2.3~2.5	

질적 전망: 발전 단계

❖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기관주도 질적 성장단계로 진입

- 연기금 주도 일임 및 사모펀드 질적 발전
- 전통자산배분에서 대체투자를 포함한 multi-asset 배분으로 다변화

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단계


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현재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환경
-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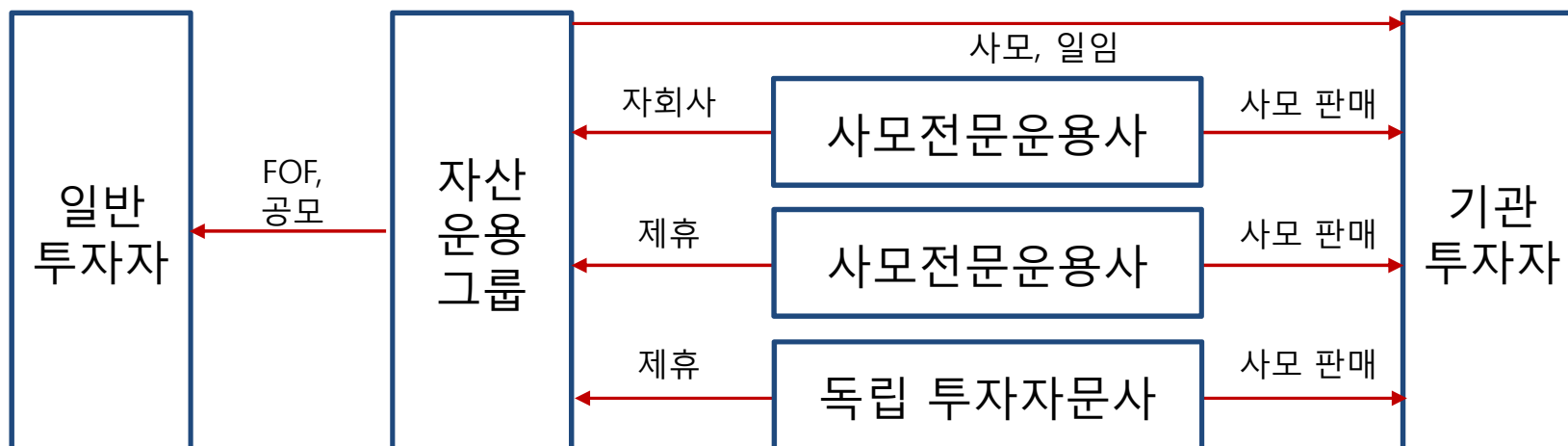
산업전략: 금융벤처 생태계



❖ Add-on 방식 재구성 → 역동성 제고 & 성장경로상 규제리스크 최소화

- 인가(등록) 단위 기준을 공모와 사모로 구분
 - 사모의 경우 자문, 일임, 펀드간 add-on 요건을 완화, 사실상 통합 운용
 - 공모의 경우 펀드운용업자 인가제 유지, 운용사의 대형화 유도
 - 자문 → 일임 → 사모펀드 → 공모펀드 등 성장경로 상의 규제리스크 최소화
- Shared service: 사모전문운용사는 핵심업무(운용)만 담당, 백오피스는 대형사나 증권사 PBS에 위탁(→ 자본요건 완화)
 - 사모전문운용사 세부 도입 방향에 따라 산업 내 value chain 변화 가능성

자산운용부문 가치사슬(예시)



산업전략: 성장모델



- ❖ 복합금융그룹 보다 자산운용전업그룹이 글로벌 시장 주도
- ❖ 자산운용그룹별 맞춤형 성장전략 필요
 - 다각화 모델: 전통자산 외 대체투자로 적극 다변화(블랙록, 미래에셋)
 - 전문화 모델: 특정자산군 중심 전문화(뱅크오브아메리카, 피델리티, 블랙스톤, 트로스톤)
 - IB 연계 모델: 특정 자산(IB 연관) 혹은 고객(전문투자자) 중심으로 전문화

글로벌 자산운용그룹의 다변화 현황(2012)

	AI	Equity	Bond	MMF	ETFs	CIT	SMA
BlackRock	○	○	○	○	○	○	○
Fidelity		○	○	○		○	○
Franklin		○	○				○
GSAM	○	○	○	○			○
PIMCO	○		○				○
SSGA		○	○	○	○	○	○
Vanguard		○	○	○	○		

주 : 1) Collective Investment Trusts
 2) 동그라미 표시는 AUM 500억 달러 이상인 경우임
 자료: OFR

글로벌 자산운용그룹의 공모펀드 비중(2012)

(단위: 십억달러, %)

	Worldwide AUM	Registered AUM(%)*	Unregistered AUM(%)*
BlackRock	3,791.6	55.8%	44.2%
Vanguard	2,215.2	95.9%	4.1%
SSGA	2,086.2	29.2%	70.8%
Fidelity	1,888.3	76.1%	23.9%
PIMCO	1,624.3	64.9%	35.1%
J.P. Morgan	1,426.4	52.0%	48.0%
Capital Research	1,045.6	100.0%	0.0%
GSAM	854.0	39.6%	60.4%
Franklin	781.8	79.0%	21.0%
UBS	634.2	1.9%	98.1%

주 : *는 전 세계 AUM 대비 비중
 자료: P&I, OFR

산업전략: 규제 정상화

- ❖ **규제 방향: 글로벌 차원에서 자산운용 경쟁력을 지원하는 규제플랫폼 구축**
 - '한국형' NCR, 지배구조, 환포지션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자산운용업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 규제
- ❖ **자산운용회사 자본규제**
 - 현행: 증권사 NCR 규제 틀 동일 적용, 더구나 운영위험은 가중 적용
 - 문제점: 시스템리스크 없고, 고객계정만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적용은 불합리
 - 자본규제는 레버리지 기반한 고유계정 운영하는 은행, 증권, 보험회사에 적합한 글로벌 규제
 - 개선방향: 운영위험에 관한 자본요건규제로 전환, 적기시정조치 적용 제외
- ❖ **지배구조 규제**
 - AUM 6조원 이상 운용사는 대형은행, 증권, 보험과 동일하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지배구조제도의 적용 대상
 - AUM 6조원 운용사의 인력은 약 60-70명 수준의 소형운용사임
 - 편익 대비 규제비용 감안, 시장활력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지배구조 적용 기준 합리화

산업전략: 규제 정상화

❖ 환포지션 규제

- 외국환포지션규제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의 외화수급을 조절하여,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시건전성규제의 일종
 - 자산운용회사도 은행, 증권과 동일하게 외국환포지션한도(자기자본의 100분의 50) 규제를 받음
-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외화를 차입 및 운용하는 은행, 증권, 보험과 달리,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목적의 환포지션은 없으며, 해외차입도 사실상 불가
 - 고객의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헤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
- 환포지션규제는 의도하지 않게 자산운용회사의 해외진출을 제약
 - 환포지션규제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법인의 설립(출자)을 어렵게 하고 있음
- 환포지션 규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,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적용 여부를 재검토

산업전략: 해외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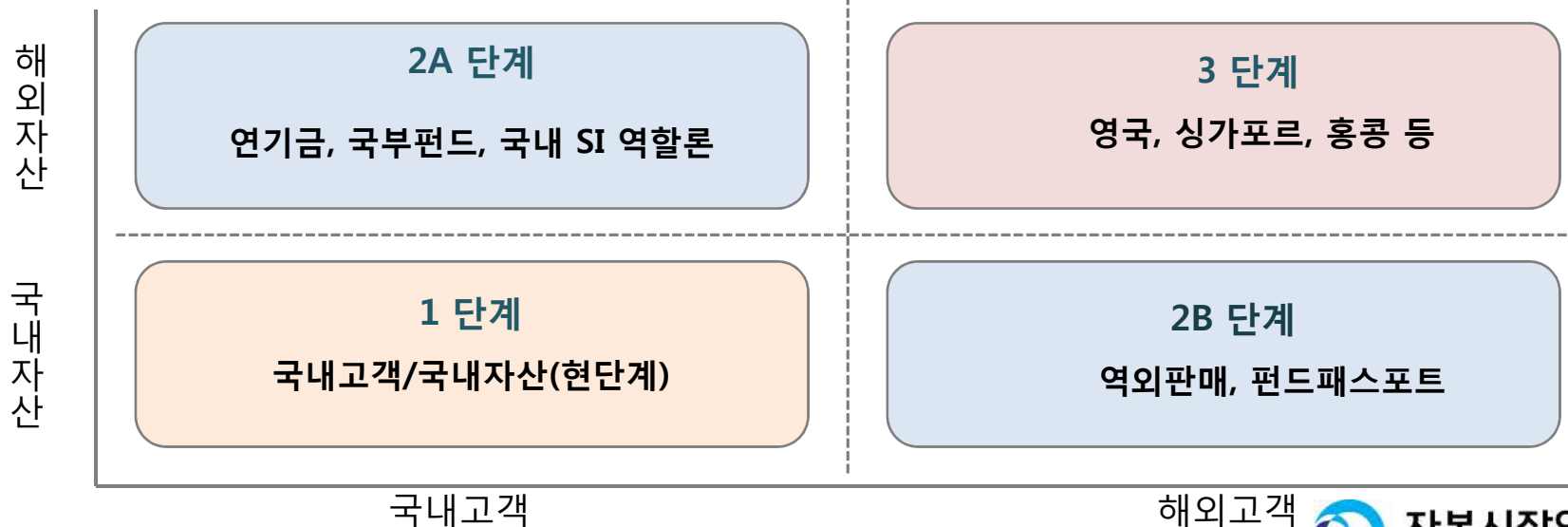
❖ 수 년 내 국제화 변곡점 도래

- 기관투자 자산 급증, 저금리, 저성장으로 국내 투자 기대수익률 둔화

❖ 고객 국제화보다 투자자산 국제화가 우선 정책 과제

- 공모펀드: 일반투자자의 해외펀드 수요 변곡점 도래(일본 경험)
- 연기금, 국부펀드: 해외투자정책과 운용회사 국제화 연계(패시브 → 액티브)
- PEF: 해외자원개발, 동북아 성장자본과 구조조정시장 진출(SI와 Copa)
- 헤지펀드: 룡숏 다변화, 글로벌 매크로 등

자산운용산업 국제화 경로



산업전략: 개방형 판매채널(1)

❖ 펀드슈퍼마켓모델의 지속적 제도 개선

- 편의성, 비용효율성, 공정성
- 판매채널 경쟁구조 재편의 촉매제

❖ 장기적으로 생애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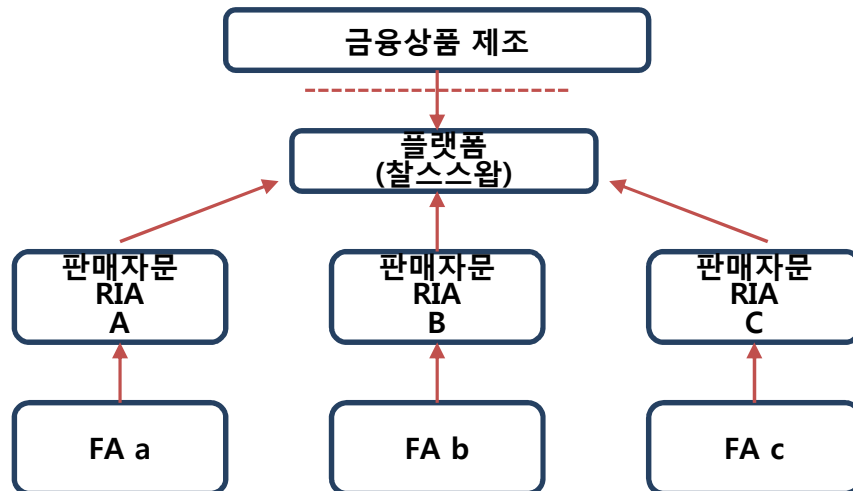
- 1단계: BTC모델
 - 자기주도 투자가 가능한 smart investor를 위한 플랫폼
 - 펀드, 연금계좌
- 2단계: BTB모델
 - 저비용 공정판매플랫폼의 일반투자자로 저변확대
 - 독립투자자문업자(IFA) 도입
- 3단계: 생애관리를 위한 금융상품백화점
 - 펀드 외 연금, 신탁, 보험 등 소매자산관리상품을 종합 진열
 - 금융소비자보호법

산업전략: 개방형 판매채널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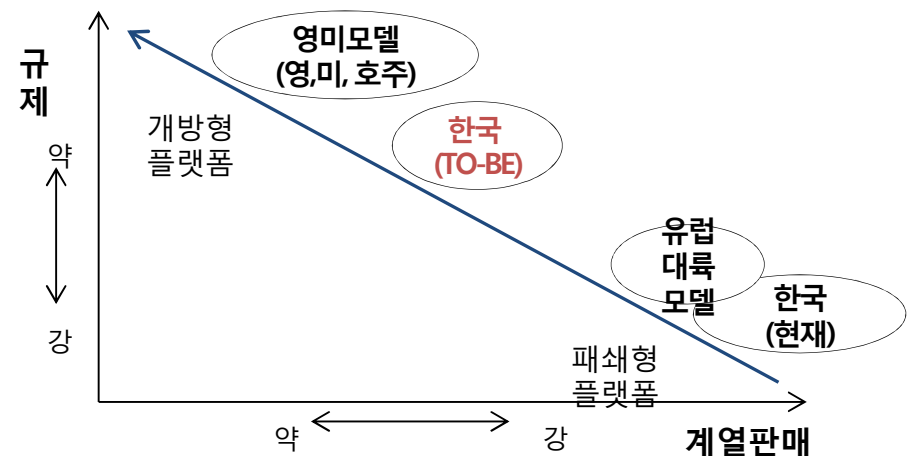
❖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시스템 재구축

- 자본시장이 균형 발전할수록 금융상품 제판결합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움
 - 금융상품 제조는 본질업무 중심으로 현행 전업주의 견지하되, 금융상품 판매는 기존 대형채널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판분리
 - 종합금융상품몰이 자산관리서비스원칙(개별성, 복합성, 맞춤형)에 부합
- 기존 채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
 - 판매보수체계, whole of market 요건 정의, 공시체계 개편

미국 찰스스왑 모델



국내 금융산업 판매채널 발전 방향



시장전략: 퇴직연금 개혁



❖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

- IPS 의무화 통한 자산배분 합리화, 투자자 편의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

❖ 한국판 401(K) 도입

- 목적: 지배구조 개선, 퇴직연금 사각지대(중소기업 등) 해소, 저소득층 지원
- 규모의 경제 달성 위해 연합형 퇴직연금기금 10개 내외 설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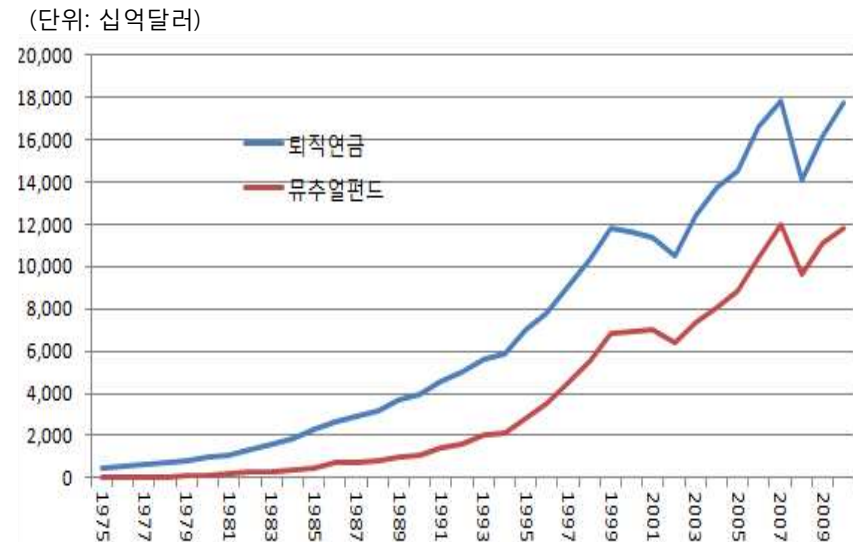
종업원 규모별 퇴직연금 연간 기여액 추정액

	근로자수(명,비중)	연간 퇴직연금 기여액 추정(조원)
전체	8,569,535	22.0
5~9인	17%	2.9
10~29인	24%	4.8
30~99인	23%	4.9
100~299인	16%	3.7
300~499인	4%	1.1
500인 이상	16%	4.5

주 : 1) 2012년 기준이며, 월급여총액 비율은 규모별 평균 급여액/전체평균급여액 비율임
 2) 연간퇴직연금 기여액 추정은 근로자수와 월급여액의 곱으로 모든 가입대상자가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최대 기여액 추정치임

자료: 고용노동통계

미국 퇴직연금과 뮤추얼펀드 성장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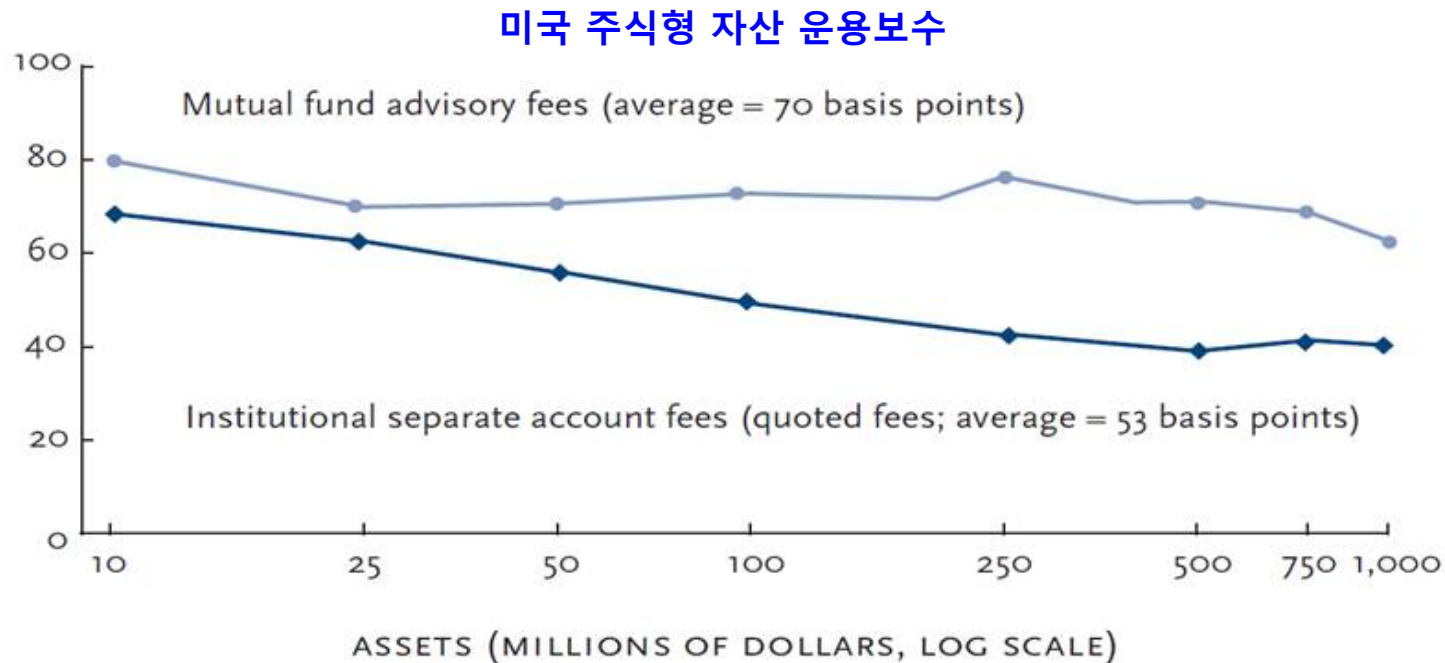
자료: ICI

시장전략: 일임시장 정상화



- ❖ **고부가치서비스와 낮은 수수료간 부조화 → 운용산업 장기 성장 저해**
 - 운용능력 약화: 인력, 리서치 등 운용능력 제고 위한 R&D 투자 소홀
 - 연금 수탁자의무 위배: 운용능력 저하는 연금자산 과소축적 초래
 - 보조금 효과: 일반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보조금(free-riding) 이전 문제

- ❖ **성과보수 현실화 → 수탁자의무와 운용산업 발전 선순환 가능**



시장전략: 공모펀드

- ❖ **기본 방향: 투자자신뢰와 중위험 장기투자 상품 개발**
 - GIPS 등 성과공시체계 개편 하여, 개방형 플랫폼전략과 연계
 - 대체투자 접근성 제고 및 퇴직연금 통한 장기투자 유도

- ❖ **공모재간접펀드 운용규제 합리화**
 - 분산투자 규제 완화, 역외펀드 편입 허용, Target date fund 등 유도
 - 사모자펀드 secondary마켓 활성화
 - 가치평가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LP 지분의 세컨더리마켓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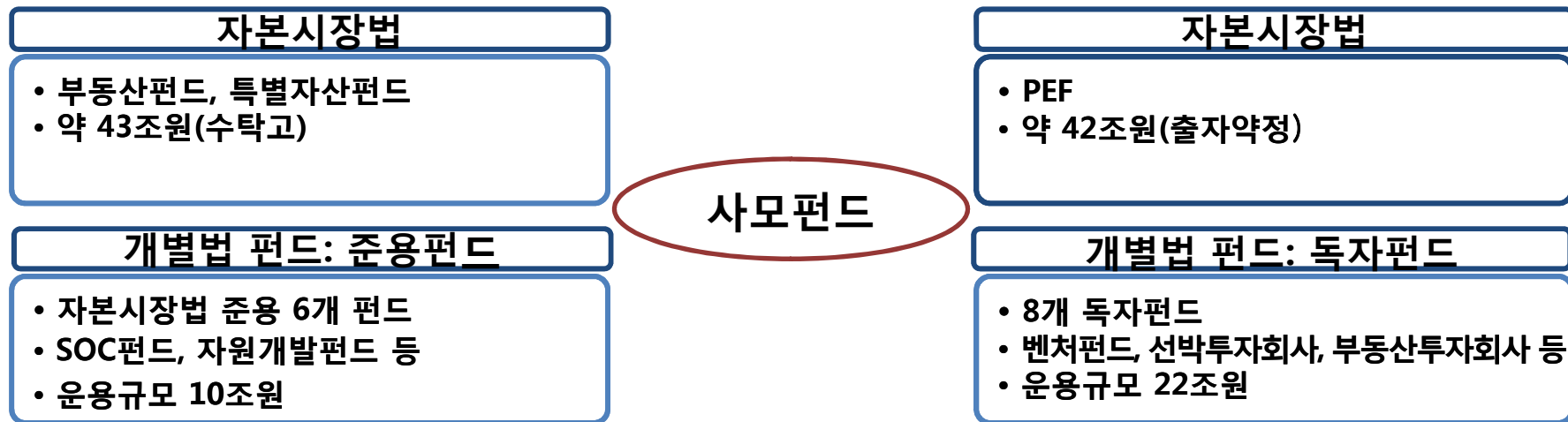
- ❖ **사모펀드 GP의 기업공개 유도 → 일반투자자도 대체투자 수익 향유**
 - 블랙스톤, KKR 등 글로벌 PEF 들은 2000년대 들어 MLP 방식으로 기업공개

- ❖ **배당펀드 도입**
 - 고배당주식을 일정 비율(가령, 50%) 이상 편입한 펀드
 - 배당펀드에 대한 세제혜택
 - 종합소득 대상자에게는 분리과세, 종합소득 비대상자는 배당소득 저율과세 혜택
 - 배당펀드 편입 주식에 대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

시장전략: 사모펀드



- ❖ 사모펀드: 칸막이 시장 → 시장간 융합 촉진
- ❖ 자본시장법
 - 1단계: 복잡다기한 사모펀드규율체계 단순화: 전문투자형 대 경영참여형
 - 2단계: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통합
- ❖ 개별법상 펀드
 - 준용펀드: 최소한의 산업정책 근거 조항만 개별법에 규정
 - 독자펀드: 규제 및 감독차익 해소, 업자간 겸영 허용(GP간 업무경계 완화)



시장전략: 헤지펀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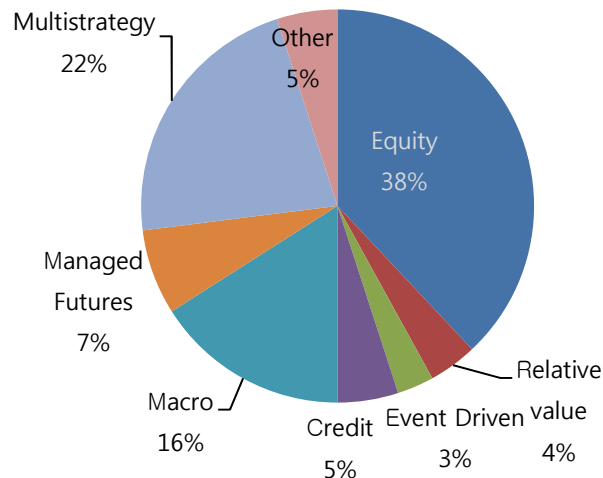
❖ 국내롱숏 중심 헤지펀드 전략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

- 글로벌 liquid AI 성장과 함께 국내 공모 롱숏도 급성장 → 수익률 둔화 가능성

❖ 투자전략 다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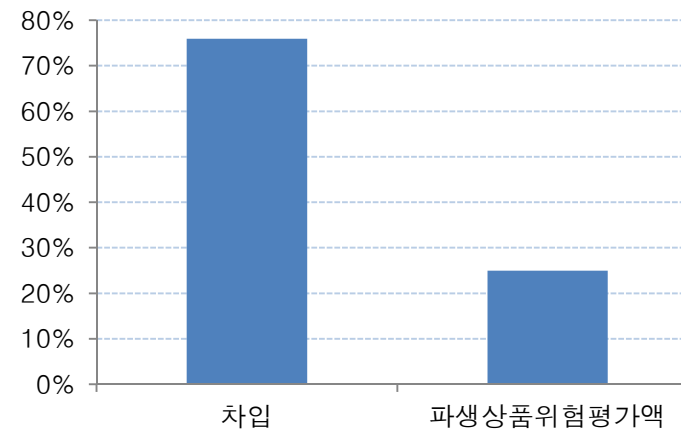
- 투자전략 다변화의 근본 해법은 M&A, 고수익채권,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 제고
- CTA, 글로벌 매크로 등에 대해 파생투자한도(400%) 완화하는 대신, 보고의무 강화
- 롱숏 확대 위한 전략(중소형주, 국내외롱숏 등)과 정책(대차시장, 공모도규제)

글로벌 헤지펀드 전략분포



자료: IOSCO(2013)

국내 헤지펀드 레버리지



주 : 2013년 9월 기준
자료: 금융감독원

감사합니다